

『베니토 세레노』의 다층적 서사와 체제적 인종주의*

한 기 옥

단독 / 인제대학교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허먼 멜빌의 『베니토 세레노』가 어떤 식으로 상호연관된 다층적 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서사들이 서로 병치되거나 결합될 때 어떤 예술적·담론적 효과를 낳는지 숙고한다. 그 과정에서 본 논문은 등장인물들을 제각각 다른 관점으로 형상화하고 섬세하게 조율된 서사형식들과 이질적인 텍스트들을 활용하는 멜빌의 비범한 방식을 면밀하게 주목한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작품의 적층적 성격에 기여하지만, 텔라노 선장의 자유간접화법과 더불어 그의 특징적인 자기기만이 특별한 조명을 받았다. 또한 존재론적 층위에서 주인에서 노예로 전복된 세레노 선장의 산 경험도 특별히 강조되었다.

『베니토 세레노』에서 멜빌은 노예제와 인종주의의 구체적인 사회적 잔학상을 폭로하는 것보다 그 양자의 근본적인 기만성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노예제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가 살아있는 개인들과 자본주의 세계체제 양자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뿌리 깊은 체제적 인종주의를 다층적 서사들을 통해 비스듬히 다루는 멜빌의 통합적 예술은 문학적인 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유와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우리는 이 중편의 다층적 서사들을 통해 심증팔구 이런 저런 방식으로 체제적 인종주의를 계속 유지할 것 같은 노예제 이후 시대의 성격에 대한 멜빌의 예지를 탐구할 수 있다.

주제어: 허먼 멜빌, 『베니토 세레노』, 다층적 서사, 자유간접화법, 체제적 인종주의

1. 글머리에

미국 사회가 노예제 문제로 양분되고 남북부 간 대립이 고조되던 시기에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은 선상 노예반란을 다룬 중편소설 『베니토 세레노』(*Benito Cereno*, 1855)를 발표한다. 그런데 이 소설은 노예반란이 중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노예제반대 혹은 노예제철폐 문학과는 작품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당시 독자들 대다수가 이 소설을 ‘노예제반대’ 쪽으로 분류한 데는 노예제반대론의 아성이던 ‘퍼트넘즈 먼슬리 매거진’(Putnam's Monthly Magazine)에 연재되었다는 사실도 한몫했을 것이다.

출간 당시 잠깐 관심을 끌었던 이 소설은 멜빌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남북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거의 잊혔다가 1920년대 ‘멜빌 부흥’(Melville Revival)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열띤 비평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소설은 멜빌 작품 가운데서 『모비 딕』(*Moby-Dick*, 1851)과 「필경사 바틀비」(“Bartleby, the Scrivener”, 1853)와 더불어 가장 많이 논의되었으며, 논자들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흑인 노예반란을 다룬 이 소설에 대한 학계와 평단의 분위기는 1950년대~1960년대 시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과 흑인권력운동(Black Power Movement)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달라졌다.

멜빌 문학을 통해 미국사회의 인종주의를 깊이 천착한 스텔링 브라운(Sterling Brown)과 C. L. R. 제임스(James) 같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시민권운동

이전에는 멜빌 문학에서 정치사회적 관점을 중시하는 비평이 드물었고 멜빌의 인종관에 대한 관심 역시 거의 전무할 정도였다(Karcher, ix). 가령 1930년대 모더니즘과 신비평 시대의 평론가 윈터즈(Yvor Winters)는 이 소설에서 “노예제의 도덕성은 쟁점이 아니”며, 쟁점은 “한 인간집단의 근본적인 악”이 풀려나서 활개를 친 것이라고 단언한다.(77) 여기서 ‘한 인간집단’은 스페인 노예선 산도미니크(San Dominick)호 선상반란의 주모자인 바보(Babo)와 그의 지휘에 따라 여전히 노예인 척 연기한 아프리카 흑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본질론적 어법이 암시하듯 미국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흑인들에게도 ‘근본적인 악’의 혐의가 전제되어 있다. 20세기 전반의 『베니토 세레노』론에서는 이런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발상이 버젓이 통용되었다.

그런데 실제 비평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무지나 무감각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신비평론자 중 드물게 진보적인 매티슨(F. O. Matthiessen)은 멜빌이 이 작품에서 “창백한 스페인 선장을 선으로, 반란을 일으킨 아프리카 흑인들을 악으로 구현한 것”을 비판하며 흑인들이 비록 야만적인 보복을 하고 끔찍한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들은 노예들이었고 따라서 애초에 그들에게 악이 행해졌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멜빌이 이 사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작품이 보여주는 비극은 “비교적 피상적”이 되고 만다고 평한다(508).

매티슨은 윈터즈와 달리 인종주의 문제에서 ‘의식 있고’ 작품 논의에서 신중한 편이지만, 이 소설이 과연 스페인 선장을 선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악으로 구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매티슨과 동년배면서 미국 흑인문학 연구에 헌신한 스티어링 브라운은 작중의 서아프리카인들이 우주적인 악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반란자들이 궤에 굶주리고 잔인하긴 하지만 멜빌이 그들을 악당으로 만들지는 않으며, 그들은 인류가 항상 그랬듯이 반란을 일으킨 것”(13)이라고 주장했다. 양자 모두 인종주의를 비판하지만 매티슨과 브라운은 멜빌이 『베니토 세레노』에서 그려낸 노예반란자들을 전혀 다르게 보고 느낀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바보를 반란의 영웅으로 보는 백인 평자도 다수 등장했기 때문에 바보와 흑인 노예들에 대한 매티슨과 브라운의 해석 차이는 두 평자의 피부색 차이로 환원될 수 없다.

시민권운동과 흑인권력운동을 계기로 『베니토 세레노』를 선과 악, 빛과 어둠, 흑과 백 등의 관념적 본질론의 대립구도에서 접근하는 기존 방식은 상당 정도 사라지고 바보를 비롯한 아프리카 흑인들을 정당한 반란의 주체로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본질적인 선의 영역에 속했던 백인 선장들, 베니토 세레노와 특히 아마싸 델라노(Amasa Delano)의 언행과 사유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분석하는 서사적·담론적 분석이 잇달아 등장하기 시작했다. 60년대 시민권운동을 비롯한 각종 흑인해방운동의 세례를 받고 ‘의식화’된 젊은이들이 진보적/혁신적인 관점에서 멜빌 텍스트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새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19세기 미국문학에 깊숙이 뿌리박힌 인종주의는 물론 신비평과 냉전 시대의 텍스트 자율주의와 ‘내통’하는 반공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멜빌 문학의 연구를 진일보시켰는데, 방법론적으로는 푸코와 데리다, 알튀세르와 들뢰즈, 아감벤에 이르는 유럽의 다양한 첨단 이론들을 적극 활용했다. 이 진보적인 평자들은 새로운 비평의 관점에서 멜빌의 작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멜빌이 빼어난 사회정치적 감수성을 지녔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한기욱, 451-453쪽 참조) 노예제에서 벗어나려는 흑인 노예들의 고난과 투쟁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멜빌과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의 연관성을 논하거나 『베니토 세레노』를 남북전쟁 이전의 노예서사들과 비교하는 논의도 다수 등장했다(Levine & Otter 및 Sale 참조).

이같은 멜빌의 사회정치적 논의가 고무적임은 분명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 주제에 한정된 지엽적인 연구로 문학 비평 특유의 통합적 사유의 힘이 실종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난다. 아울러 멜빌 문학이 지닌 특이한 발본성, 이를테면 복잡성과 애매성의 서사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근대체제의 세상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다시 상상하고 사유하게 하는 예술적 논의의 지평이 배제될 우려도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베니토 세레노』의 다층적 서사에 주목하여 상호연관된 여러 층위의 서사들이 쌓이고 결합되면서 생겨나는 예술적·담론적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멜빌은 이 소설에서 인물형상화 방식, 관점과 화법, 미스터리/가장무도 연극의 형식, 이질적인 텍스트들의 병치를 통해 소설형식 내부로부터의 비범한 혁신을 이룩함과 동

시에 근대 자본주의체제에서 노예제/인종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동시에 고민하는, 역사와 문학의 통합적 사유를 보여준다.

미국문학에서 인종주의를 다루는 작품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것을 이 작품에서처럼 어떤 지역이나 나라의 국지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넘어 전지구적인 체제와 관련해서 사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베니토 세레노』는 아프리카 흑인의 노예화 문제를 남북전쟁 직전 미국의 인종주의적 갈등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적인 구도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근대 자본주의의 ‘체제적 인종주의’를 깊이 사유하게 한다. 이때의 ‘체제’란 흑인노예화를 내포하는 미국의 모순적인 민주주의 체제에 국한되지 않고 인종주의적 차별과 착취에 기반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 예술적 효과는 『모비 딕』이 멜빌 당대의 고래잡이를 실감나게 그려냄과 동시에 피쿼드호의 침몰을 통해 근대세계의 종말을 예감하게 하듯, 『베니토 세레노』는 멜빌 당대의 노예제와 인종차별관계를 미묘하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에까지 지속되는 다양한 모습의 체제적 인종주의를 예감케 하는 예지적인 면모를 띤다.

2. 이질적 텍스트의 병치와 다층적 문화적·역사적 서사

『베니토 세레노』는 『모비 딕』을 비롯한 멜빌의 여러 소설들처럼 사실적인 차원의 이야기와 상징적/알레고리적 차원의 서술과 담론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모더니즘과 신비평 시대의 비평가 대다수는 전자는 외면한 채 후자의 매력에 끌려갔다면 그 이후에 필요한 작업은 이 작품의 다층적 서사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양자의 차원을 모두 고려하면서 멜빌 예술에 좀더 가까이 가는 읽기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서사의 차원이나 층위를 논할 때 서로 다른 이질적인 텍스트의 병치와 결합이라는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노예선 산도미니크에서 흑인 노예들의 위장극이 ‘가장무도’처럼 펼쳐지는 주된 서사와 사건 전말을 진술하는 말미 부분의 법정증언을 함께 고려하면, 이 소설은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장르 경계횡단의 속성도 내

장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인물들인 델라노, 세레노, 바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어 이야기의 층위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다.

멜빌은 실존인물인 아마싸 델라노 선장의 회고록 『북반부와 남반부에서의 항해와 여행 이야기』(*A Narrative of Voyage and Travels,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Hemispheres*, 1817)의 18장 “스페인 선박 트라이얼호의 포획 세부사항”(Particulars of the Capture of the Spanish Ship Tryal)을 소설화하면서 그 장 말미에 덧붙여진 선상 반란사건 관련자들의 법정증언까지 편집·각색하여 소설의 일부로 배치한다. 말하자면 멜빌은 회고록과 법정증언이라는 ‘비문학적’인 텍스트를 작품 내의 중요 요소로 통합함으로써 문학과 역사의 접경지역에 초점을 맞췄고, 덕분에 『베니토 세레노』는 통상의 문학 텍스트보다 당대 사회와 역사에 훨씬 밀접하되 열려있는 구조가 된다. 이 열린 공간에서 바라보면, 노예반란 사건들과 그와 관련된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는 당대 미국사회의 핵심 쟁점일뿐더러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쌍생아로서 근대세계 전체에 걸쳐 있는 전지구적 문제가 된다.¹⁾

1960년대 이래 다수의 멜빌 연구자들은 산도미니크 선상반란을 노예제를 놓고 갈등하고 대립하던 미국의 남북부 간의 첨예한 내분 상황과 연관지어 논하였다. 한광택이 면밀한 이데올로기 분석과 추적을 통해 보여주듯, 이 지평에서 델라노는 북부 백인을, 세레노는 남부 백인을 각각 대변하는 인물로 비취지며 북부 출신의 델라노가 노예 폐지론에 찬성하되 사실상 인종주의에 물들어 있는 북부 자유주의자로 조명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칠레 태생의 스페인인 세레노 선장도 남부 백인의 처지 및 심리상태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소설에서 제시된 상황과 인물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되거니와, 거기서 출발해서 서사와 인물의 의미를 확장할 때만이 미국을 포함한 신세계, 나아가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체제 속에 깊이 뿌리박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까지 사유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세레노 선장은 한편으로는 새롭게 부상하는 식민제국 미국과, 다른 한편으로 노예제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흑인들 양자로부터 압박받는 구세계의 인물로 조명될 수 있으며, 흑인들 역시 일차적으로 신세계로 팔려가는 아프리카인으로서 조명되며 그 연

장선상에서 미국 남부 노예제 하의 흑인들과 연결된다.

이 지점에서 멜빌 문학에 특별한 관심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유의미한 기여가 있었다. 스티링 스텤티키(Sterling Stuckey)는 『베니토 세레노』와 델라노 회고록과의 관계를 면밀히 재검토했으로써 괄목할 만한 주장을 폈다. 멜빌이 델라노 회고록의 여러 장들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변형/융합하여 소설에 활용했는데, 대다수 비평가들이 델라노 회고록의 18장만 읽고 논함으로써 멜빌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12) 작품 논의에 요긴한 16장을 자신의 연구서 말미에 ‘부록’으로 달아놓았다. 그는 멜빌이 프레더릭 더글러스에 영향을 받아 아프리카 문화--특히 흑인노예의 음악과 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구현한 『모비 딕』과 『베니토 세레노』를 멜빌 문학의 최고작들로 꼽는다. 스텤티키는 “멜빌 예술의 고전적인 특징은 그것의 놀라울 만큼 적층적인 성격”(4)이라고 지적하며, 두 층위의 문화를 지닌 이 소설의 ‘적층적 성격’을 눈여겨본다. 말하자면, 미국 자유주의 백인의 문화가 텍스트의 전면과 표면에 포진하고 있더라도 그 아래층에는 아프리카 흑인의 문화를 포함한 문화들이 숨겨져 있어 작품의 상징, 인물형상화, 장면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스텤티키는 이 작품이 다층적인 문화적 서사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역사학자 그렉 그랜딘(Greg Grandin)은 델라노 회고록 전체의 면밀한 읽기를 통해 『베니토 세레노』 해석에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멜빌이 노예무역사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1800년대 초반의 사건을 택하여 소설화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1804년(소설에는 1799년)의 선상 노예반란사건은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북전쟁 직전의 의미심장한 사건들--멜빌의 장인 러뮤엘 쇼(Lemuel Shaw) 매사추세츠 대법원 판사가 북부로 도망쳐온 흑인노예를 다시 남부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한 사건을 포함해서--보다 더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흑인 노예들의 반란 행위 자체보다 그것을 속이려고 연극을 한 행위를 더 의미심장하게 눈여겨본 점도 새삼 멜빌의 비범함으로 평가한다. 트라이호 선상에서 바보의 안무연출에 따라 가장무도를 펼치는 뉴잉글랜드인 델라노, 스페인인 세레노, 서아프리카인 모리(소설에서는

바보)의 ‘삼인무’(三人舞, pas de trois)는 세레노의 가톨릭교, 델라노의 개신교, 서아 프리카인들의 이슬람교까지 감안하면 1800년대 초반 여러 세력들이 대치하던 신세계의 풍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The Empire of Necessity*, 8) 요컨대 이 소설은 출간시기인 남북전쟁 직전의 미국과 작중 시공간인 1800년대 초반의 신세계를 동시에 환기하는 다층적인 역사적 서사를 내장하고 있다.

델라노 선장에 대한 그랜딘의 통찰도 주목할 만하다. 델라노는 노예제가 과거의 유물로서 차츰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지만 노예반란을 진압하고 응징하는 그의 행동과 방식, 그의 선원들의 야만적인 행태는 팽창하는 제국 미국의 향후 지배 방식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델라노가 ‘물개잡이 배’의 선장이라는 것과 관련 있다. 당시 물개잡이 산업은 끝물이었다. 1790년대 물개개죽의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물개는 무자비한 방식으로 남획되었고 그 결과 델라노가 노예선 트라일호를 만났던 1805년에 이르러서는 얼마 남지 않은 물개를 놓고 물개잡이 배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었다. 물개잡이꾼으로서의 델라노의 면면을 『모비 딕』의 에이협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논한 것도 사실성과 상징성, 역사와 예술을 아우르는 멜빌 문학 특유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에이협 선장은 미국의 편집광적인 패권주의의 상징으로서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지만, 사실은 정신이 멀쩡하며 젊잖고 착한 심성의 델라노 선장 같은 유형이 지구의 생태와 문명에 더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델라노를 에이협과 같은 위상에서 다루면서 그를 미 제국의 두 얼굴 중 지구의 어두운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로 포착한 점이 남다르다.(Grandin, “The Two Faces of Empire” 참조)

델라노 선장에 대한 그랜딘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멜빌 소설의 예지적 성격을 부각하는 것이지만, 그의 추론은 기본적으로 역사학적 자료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로리 발포어(Lawrie Balfour)의 경우는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이 소설의 예지적 성격을 논한다. 그에 따르면 이 소설의 서사를 구조화하는 것은 세 가지 ‘우애’ 관계, 즉 산도미니크의 선주인 아란다(Arranda)와 세레노 선장, 세레노와 바보, 세레노와 델라노의 관계이다. 이들 관계는 실제로는 위계와 지배 종속의 관계일지라도 외면적으로는 우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작품은 이때의 우애란 것이 구조적이고 실제적인 불평등 관계일뿐더러 그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는 순간 타자에 대한 폭력과 강압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그런 측면에서는 멜빌 당대 북부 백인들이 지닌 허위의식적인 면모뿐 아니라 ‘인종주의 이후’를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선전된 ‘이데올로기화된 우애’를 미리 보여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작품의 불편한 비범성을 “잔인하고 인종적으로 위계화된 질서가 우애의 수행을 통해 유지되는 방식들에 대한 통찰”(261)에서 찾은 발포어는 “『베니토 세레노』는 내전[남북전쟁]의 대변동을 예언한 것 때문여라기보다 1861-1865년의 거대한 투쟁 이전과 이후, 바로 우리 당대에까지 이르는 ‘낮은 등급의 내전’을 조명한 것 때문에 더없이 소중한 것일 수 있다”(264)고 그 예지적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

3. 초점화자 델라노와 자유간접화법, 정동과 불가해성

『베니토 세레노』의 뛰어난 점이나 그 예지적 성격은, 이 소설이 당대의 노예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던 사람들과 세상을 제시하는 특이한 인물형상화와 화법, 그리고 미스터리 연극 형식을 빼놓고는 실답게 논하기 힘들다. 사실 이 소설의 경우 기법이 곧 인간관 이요 세계관이랄 수 있다. 우선, 이 소설의 인물형상화 과정에 깃들여 있는 특이한 시선을 주목하면 어떻게 이 소설이 보통의 노예제폐지 소설이나 노예이야기가 빠져든 상투형의 텃에 걸리지 않는지 납득할 수 있다. 가령 노예제폐지론 문학의 대명사로 통하던 비처 스토크(Harriet Beecher Stowe)의 『툼 아저씨의 오두막』(*Uncle Tom's Cabin*, 1852)은 ‘툼 아저씨’를 포함한 흑인 노예들과 백인 주인들의 인종적 상투형에 의존하는 감상적인 소설, 사실상 ‘낭만적 인종주의’ 소설인데,²⁾ 이와 비교할 때 『베니토 세레노』는 상투형의 인물을 제시하되 그것을 교묘하게 비튼다. 이 소설의 예술적 특성은 (인종, 젠더, 계급, 국가 등과 연관된) 상투형들의 이면을 파고들어 숨겨진 진실에 닿고자 하는 분투에서 비롯된다.

소설의 전면에 부각되는 인물은 델라노 선장이다. 『베니토 세레노』의 대부분이 작중인물 델라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만큼, 그의 관점과 해석이 서사의 주된 흐름을 형성한다. 델라노의 산도미니크 승선 장면에 대한 델방코(Andrew Delbanco)의 논평처럼 우리는 델라노의 관점과 너무 가까워져서 “그 장면을 마치 그의 어깨 너머로 목격하고 ‘소란스런’ 군중의 소리를 마치 그의 귀를 통해 듣는”(234) 듯하다. 하지만 소설의 델라노는 일인칭 화자가 아니라 삼인칭 화자—정확히는 ‘초점화자’(focalizer)—이며 객관적 서술자인 전지적 화자는 따로 있다. 앞의 승선 장면에서 처음에는 “배의 측면을 올라가자 방문객은 소란스런 한 무리의 백인과 흑인에게 즉시 둘러싸였다”(Melville 49)처럼 전지적 화자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괴혈병이 열병과 아울러 그들 대다수를, 특히 스페인인들을 쓸어가버렸다”(49)처럼 델라노가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초점화자의 발화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서술하는 자유간접화법으로 어느새 빠져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원전 여행기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일인칭 시점에서 벗어나, 화자의 목소리와 델라노의 내면을 드러내는 자유간접화법을 오가는 복합적인 서술방식을 동원하여 소설 속 델라노로부터 거리두기를 한다”는 서주희의 지적(33)은 타당하고 요긴하다. 다만 그런 ‘거리두기’가 미묘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우선, 전지적 화자가 좀처럼 나서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초점화자인 델라노 사이의 ‘거리’를 의식하기 쉽지 않다. 왜 그런지는 델라노가 만약 삼인칭 화자/초점화자가 아니라 「필경사 바틀비」의 변호사처럼 일인칭 화자일 경우를 가정해보면 납득할 수 있다. 그 경우 델라노의 독백은 그 한계를 너무 쉽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며, 그에 따라 독자는 시종일관 그로부터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했을 것이다. 멜빌은 여기서 델라노의 이야기를 소설의 전면 배치하고 필요할 때만 잠깐씩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그 이야기의 일정한 논리와 호소력을 유지하되 그것을 미묘한 방식으로 ‘상대화’하고 있다. 델라노의 이야기는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통째로 엉터리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수상쩍어지다가 어디서부터는 믿을 수 없는데, 이 미묘한 경계를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비평적 읽기의 관건이다.

명시적인 비판 대신 미묘한 방식의 상대화는 이 소설의 미스터리 연극 형식에도 필수불가결하다. 사기극의 긴장감이 유지되려면 델라노 이야기가 상당한 흡입력을 지닐 만큼 그럴듯해야 하고 노예제와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가능하려면 델라노의 이야기를 뼈뺌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상충하는 두 요구를 소설은 전지적 화자와 델라노의 속내를 표나지 않게 드러내는 자유간접화법을 오가며 충족시킨다. 멜빌의 이런 화법 운용은 세레노 선장과 반란 지도자 바보의 이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두 인물은 델라노 관점의 자유간접화법을 통해 묘사되고 기술되지만 전지적 화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델라노의 관점에만 복속되지 않는다. 요컨대 세레노와 바보는 주인공 델라노의 보조역이 아니라 비중은 덜하지만 독립된 위상의 인물로 나타난다.

전지적 화자는 서두에 델라노를 “유난히 불신할 줄 모르는 선량한 성격”으로서 “예외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인될 때를 제하고는,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좀처럼, 개인적인 불안에 빠져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사악한 악의를 씌우지 않을 법한” 사람으로 제시한다(47). 얼핏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듯하지만 “인간의 가능한 역량을 고려할 때, 그런 성품이 자애로운 마음과 동행하면서 보통 이상의 신속·정확한 지적 지각력을 수반하는지는 현자(賢者)들이 결정하도록 남겨둘 것”(47)이라고 유보를 단다. 예두른 비판이지만 그의 지적 지각력이 상당히 무디고 부정확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사실, 델라노는 흑인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배를 장악했음을 알아챈 후에는 주저 없이 선원들에게 보상금을 걸고 흑인들을 마치 사냥감인 양 추적하도록 독려한다. 이때의 델라노는 선량함과 거리가 멀고 백인 선장으로서 흑인노예 반란자들을 제압하고 응징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진 물질적 보상에 몰두해 있다. 반란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도덕적인 문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 사유의 결여가 권력을 지키는 일의 실무적 수행에 유리하기도 하다. 사실이 대목을 두고 델라노의 고유한 ‘착함’과 ‘도덕적 단순성’이란 그냥 ‘순진성’인 게 아니라 특권, 권력, 자기이미지의 폭력적인 방어를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함을 지적한 캐버나(James H. Kavanagh)의 주장(362)은 앞서 ‘우에’의 수행을 통해 인종적 위계질서

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지적한 발포어의 논의와도 통한다.

텔라노의 이런 허위의식적이고 모순적인 이중성도 눈여겨봐야겠지만 그보다 더의 미심장한 것은 멜빌이 텔라노의 잡다한 생각과 느낌이 수시로 교차하는 내면 풍경을 보통의 사실주의 서사와는 판이한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메시지 중심의 소설 서사가 대체로 사회적 의식과 인식론의 지평에 머무는 것과 달리 『베니토 세레노』는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지각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텔라노 내부에서 형성된 선입관이나 외부로부터 촉발된 상념뿐 아니라 무엇보다 의식 너머에서 발원하는 명확하지 않은 느낌까지 포착한다. 그 느낌에 대한 텔라노 자신의 추론적인 반응은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 결과 산도미니크의 뭔가 불길한 상황과 세레노와 바보의 상례를 벗어난 행동을 지켜보는 텔라노의 내면은 의혹/불안-유형화/합리화-긴장해소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텔라노의 내면 서사가 이렇듯 합리적 추론을 넘어 느낌 중심의 정동³⁾을 띠는 데 대해서 샌번(Geoffrey Sanborn)은 멜빌이 「필경사 바틀비」와 『베니토 세레노』를 집필 하면서 진리를 설교하려는 욕망을 자제하고 대신 “불편한 당혹감의 상태에 빠진 사람과 [...] 진실을 마주보고 그 정동적 감흥을 전달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35-36)를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필경사 바틀비」의 변호사는 바틀비에게, 텔라노 선장은 세레노 선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변호사와 텔라노는 그 무슨 일을 분명히 느낀다”(36)는 것이다. 이 느낌의 연원은 알 수 없으나,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발원했음이 분명하다. 멜빌은 진실/진리를 직접 설(設)하는 방식에서 독자로 하여금 느낌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무의식의 영역을 대거 소설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샌번은 무의식에 관한 볼라스(Christopher Bollas)의 새로운 이론에서 ‘억눌린 정신적 물질의 저장소’로서의 무의식과 전혀 다른 ‘수용적 무의식’(the receptive unconscious)을 주목한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지각을 저장하고 [...] 그것들을 조직화하며 [...] 바로 창조성의 매트릭스”라는 것이다(36). 볼라스처럼 창조성의 거처를 무의식의 특정 영역에 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무의식의 영역을 제하고는 창조성

을 제대로 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멜빌의 후기작들, 특히 『베니토 세레노』가 무의식의 영역을 소설 서사의 중심 무대로 끌어들이므로 의식 중심의 서사들에서 탈피하여 인간 존재의 전체상과 창조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점은 멜빌의 후기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가해성’과 ‘애매성’과도 연관되며, 주어진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 인식 이상의 직관과 통찰을 요구함으로써, 멜빌의 서사예술을 예지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다.

4. 위장 연극과 존재론적 체형

델라노의 회고록 18장과 『베니토 세레노』를 비교하면 소설화 과정에서 몇몇 주요 장면이 추가되면서 노예 반란자들의 위장 연극과 반전의 극적 효과가 훨씬 강화되었음이 확인된다. 회고록에서는 흑인노예들이 반란 사실을 숨기고 연극을 했다는 사실이 일찌감치 등장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이 조성되지 않을뿐더러 흑인 반란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노예선 선장 역을 연기해야 했던 세레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도 짐작하기 힘들다. 게다가 델라노 선장 자신이 왜 한나절 동안이나 반란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멜빌이 델라노 선장의 시각에서 진술된 노예반란 사건의 사실적 회고록을 인종주의의 실제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미스터리 연극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온종일 지속되는 이 기만극의 매력적인 지점은 그것이 노예제의 이데올로기적 건축물 전체가 기반하고 있는 더 큰 거짓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위장 연극보다 더 큰 거짓이란 흑인 노예들은 충직하고 단순하며 독립적인 삶과 사유의 능력을 결하고 있으며, 그들의 내면이 있다면 그것도 주인의 소유라는 발상들인데(Grandin 8 참조), 이런 노예제에 대한 통념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에 동원되면서 체제적 인종주의로 자리 잡게 된다. 노예반란자들의 위장 연극은 오로지 델라노 선장을 속이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연출된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거짓인 인종주의는 근대세계에 사는 수많은 사람

들을 피부색으로 분할하여 자본주의적 노동력 착취의 유력한 기제로 삼기 위해 구축된 ‘체제’적 기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작품은 선상의 위장 연극을 통해서 인물들에게 존재론적 전환 체험을 맛보게 하고 체제적 인종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정동을 감지할 수 있는 계기들을 곳곳에서 제시한다.

바보가 세레노 선장에게 면도를 시켜주는 장면—소설화 과정에서 추가된 장면—은 그중에서도 압권이다. 바보는 세레노에게 면도 시간이 되었다며 델라노와 대화 중인 바보를 선미루 아래에 형성된 갑판선실(deck-cabin)과 간부 선원들의 거처를 터서 만든 넓은 공간으로 데려간다. 특이한 것은 델라노에게도 동행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것을 청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적어도 처음에는—분명치 않은 듯하다. 하지만 위장극의 전말을 알고 난 다음에는 바보가 세레노를 면도칼로 위협하는 것 못지않게 델라노를 곁에서 감시해야 하는데, 이 두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책이 아닐까 싶다. 이 장면에서 연극의 무대장치에 속하는 대소 도구들, “가난한 탁발수사(修士)의 허리띠 더미 같은 낡고 우울한 삭구들 가운데 난도질당한 작살 하나와 움푹 팬 단도 한두 자루”(82)와 “낡아서 검은색으로 변하고 심문관의 고문대 같아서 바라보기에도 불편한, 등(藤)줄기로 만든 골이 깊은 긴 의자 두개와 크고 흉한 팔걸이의자”가 눈에 띄는데, 특히 후자는 “뒷면에 나사로 작동되는 목 받침대가 부착되어 있어 중세의 괴상한 고문기계처럼 보였다”는 것이다(82-83).

이 부분에서 “탁발수사의 허리띠 더미” “심문관의 고문대”, “중세의 괴상한 고문기계” 등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스페인의 악명 높은 종교재판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비유들은 작품에 편재되어 있는 수도원의 이미지들과 결합되어, 당시 앵글로색슨족의 팽창시대 이데올로기에 물든 델라노의 반(反)스페인적 반(反)가톨릭적 시각과 정서의 소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장면의 일면일 뿐이다. 더 중요한 면은 바보와 세레노의 연기를 지켜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델라노의 내면 풍경이다.

바보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주인의 칼라와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면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맞은 편 긴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는 델라노는 흑인에 대한 기분 좋은 통념에

빠져 “대부분의 흑인들은 타고난 몸종이자 미용사들이라서 캐스터네츠만큼이나 빛과 솔에 천성적으로 애착을 느끼고 분명 그 못지않게 만족스러운 듯 그것들을 휘둘러댄다”(83)고 생각한다. 반란을 지휘한 바보를 두고 “몸종이나 미용사”에 딱 맞는 유형이라고 보는 델라노의 유형화된 인식이 얼마나 눈먼 것인지는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종교재판을 연상케 하는 “중세의 괴상한 고문기계”에 세레노가 몸을 내맡기고 있는 상황은 심문의 대상과 주체가 뒤바뀌는 반전을 통해 아이러니를 자아내며, 이같은 아이러니는 델라노의 유형화된 인식이 진전된 형태로 드러날 때마다 더욱 심화되고 증폭된다. 가령 바보의 모습에서 “생각이 좁은 사람의 소박한 만족감에서 나오는 유순함과 명백하게 열등한 사람들에게 때로 내재되어 있는 쉽게 맹목적인 애착에 빠지기 쉬운 경향”(84)을 연상한다든지 “델라노 선장은 다른 사람들이 뉴펀들랜드산 개에 애착을 느끼는 것과 똑같이 흑인들에게 박애적이 아닌 동질적인 애착을 느꼈”(84)음을 드러내는 대목이 그렇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델라노가 이런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의 유형화와 통념으로만 지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바보가 세레노의 목덜미를 의자의 목 받침대에 고정하고 화려하고 다채로운 스페인 국기를 세레노의 목주위에 둘러치고는, 면도칼을 들고 세레노에 접근하는 순간 델라노는 얼핏 “흑인에게서 효수자의 모습을, 백인에게서는 단두대에 몸을 맡긴 사람의 모습을 보는”(85)데, 이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불쑥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준다. 사실 면도하는 장면에서 델라노는 “어쩌면 어떤 미지의 목적을 위해 주인과 하인이 말과 행동 양면으로, 아니 돈 베니토의 사지의 떨림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자기 앞에서 뭔가 마술을 부리는 연극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87)는 생각까지 든다. 이처럼 위장 연극 장면들은 델라노가 의식의 표면에서는 인종주의적 유형화에 휘둘리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뭔가 요상한 연극의 김새도 느끼는 면도 제시한다. 그렇기에 델라노는 이 연극이 끝나는 순간 이제까지의 상황을 순식간에 깨닫는데, 그럼에도 이 연극의 경험이 그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위장 연극을 통해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인물은 세레노이다. 반란사건이 일단락되어 리마로 가는 도중 세레노와 델라노 사이에서 “거듭거듭 바보가 그 스페인인에

게 강요한 역을 연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되풀이 이야기되었다”(114). 그런데 세레노에게 강요된 배역은 다름 아닌 노예선의 백인 선장 역으로서, 반란 전까지 세레노의 직책이었음을 고려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겉보기로는 달라진 것이 없도록 연기하는데, 사실은 주인에서 노예의 역할로 뒤집힌 것이 세레노의 상황이다.⁴⁾ 세레노는 바틀비만큼은 아니더라도 뿔뿔이 그 속내를 좀처럼 비추지 않는 인물이기에 그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어쨌든 세레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전복적 체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주인과 노예의 지위란 피부색의 차이보다 누가 힘을 갖느냐에 달려있음을 실감했을 법하다. 이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백인과 흑인이라는 피부색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에게 이 점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도 모른다. 동시에 어쩌면 한 존재가 인종적 차이에 따른 일체의 지각과 상념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도 암시하는 듯하다.

5. 세 인물과 체제적 인종주의

이 소설의 다층적 서사와 복합적인 형식, 그리고 세 인물과 관점을 고려하면, 델방코의 지적처럼 『베니토 세레노』는 “세 번 말해진 이야기”(thrice-told tale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일 처음에는 델라노의 관점을 중심으로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인지를 묻는 ‘미스터리’로, 그런 다음에는 세레노의 관점에서 흑인의 배반과 백인의 용기를 전제하는 법정증언으로, 마지막으로 바보의 침묵으로 또다시 말해진다. (Delbanco, 242) 다만 법정증언이 세레노의 진정한 관점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렇기에 세레노의 언행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리마로 가는 도중에 세레노와 델라노는 이런 대화를 나눈다.

“베니토씨, 당신은 구제되었어요,” 델라노 선장은 더욱더 놀라고 마음 아파하며 말했다. “당신은 구제되었는데, 대체 무엇이 당신한테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겁니까?”

“그 흑인이요.”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그 우울한 사람은 망토가 마치 관을 덮는 천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으로 천천히, 의식적으로 몸을 감쌌다.

“You are saved, Don Benito,” cried Captain Delano, more and more astonished and pained; “you are saved; what has cast such a shadow upon you?”

“The Negro.”

There was silence, while the moody man sat, slowly and unconsciously gathering his mantle about him, as if it were a pall. (116)

이 장면은 노예 반란사건과 위장 연극이 끝난 후에 두 인물의 대조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 델라노는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종결되었고 세레노는 반란자의 손아귀에서 구제되었으니 예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갈 것을 증용하지만 세레노는 예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세레노에게는 이제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의 구분마저 허물어진 것인지 모른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한 것이 ‘그 흑인’이라고 답했다고 해서 그를 비관주의로 몰아 결국 죽게 만든 것이 바보라는 특징인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흑인들의 통칭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적실한 것 같지 않고, 아마도 양자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 양의적인 차원의 대답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어쩌면 인종주의 체제에서 피부색이 본질적인 속성은 아닐 수 있으며, 그렇다면 백인도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세레노에게) ‘끔찍한’ 생각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그런 가능성은 과거지사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대목은 세레노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불확실하고 불가해하게 남겨둬으로써 그가 경험한 뒤집어진 존재 경험의 의미를 여러 차원에서 깊이 숙고하도록 만든다.

바보는 델라노의 우월한 체력에 압도되어 붙잡힌 후 일언반구도 내뱉지 않았고, 아

무리 강요해도 말이 없었다. “그의 모습은 내가 행동을 할 수 없으니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했다”(116). 이를테면 ‘패장은 말이 없다’는 격언처럼 그의 침묵은 싸움에서 진 장수의 태도처럼 조명된다. 이런 그의 태도는 그의 마지막 모습과 부합한다. “몇달 뒤 그 흑인은 노새의 꼬리에 묶여 효시대(梟示臺)로 끌려가 말없이 조용한 최후를 맞이했다. 시신은 불태워져 재만 남았지만, 저 치밀함의 별통인 그의 머리는 광장의 장대 끝에 붙박여 백인들의 시선을 태연히 맞받았다”(116).

이 대목에서 전지적 화자는 바보의 최후를 백인들의 시선을 태연히 맞받을 정도로 백인들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며, “치밀함의 별통”(hive of subtlety)처럼 지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그려냄으로써 노예제폐지론 소설들이 종종 내장한 ‘낭만적 인종주의’와는 멀찌감치 거리를 둔다. 그렇다고 이 소설을 노예제에 맞서 싸운 흑인들의 투쟁기로, 바보를 그 저항의 주인공으로 조명하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축소할 수 있다. 이 소설을 멜빌 동시대의 노예서사들과 관련지어 저항소설의 관점에서 논하면 바보를 침묵하는 것으로 그려낸 것이 불만일 수 있지만(Sale, 151 참조), 오히려 바보의 침묵이 흑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만든다는 지적(Balfour, 272)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은 당면의 인종주의적 사건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의 인종적 정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소설에 짙게 깔려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정동으로 보건대 멜빌은 특정한 사회적 참상보다 노예제의 근원적 기만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랜딘의 지적처럼, 그 기만성의 핵심에는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노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환상”(9)이 깔려 있다. 『베니토 세레노』를 읽을 때 그 환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노예제폐지가 도래한다고 해도 그 환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인간사 속에서 더욱더 포착하기 힘들게 되리라는 것을 멜빌이 알거나 두려워한 느낌이 묻어난다. “『베니토 세레노』가 그토록 오래가는 이야기가 되고, 멜빌이 노예제의 진정한 권력과 지속적인 유산에 대한 그토록 영민한 감정평가자가 되는 까닭은 바로 그의 이런 의식, 이런 두려움 때문”(10)이라는 그랜딘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에 흑인반란자들의 위장극이 끝나면서 극적 반전이 이뤄지는 장면에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더 짙게 배어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최종적인 아이러니로 느껴진다. 이 두려움의 원천 중에 하나는 결국 미래의 세계를 주도할 델라노라는 인물이 함축하고 있는 특성인데, 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소설 말미에서다. 세레노에 이어 바보까지 자기 보트로 뛰어내려 델라노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순간인데, 멜빌은 이를 특별히 부각하여 “이 모든 것, 선행한 것과 뒤따른 것이 너무나 빠르게 회전하여 일어나는 바람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듯한 순간”(98)이라고 서술한다. 델라노는 우월한 체력으로 보트에 뛰어든 두 사람을 곧 제압하는데, 왼손으로는 반쯤 기울어진 세레노의 목을 조르고 오른팔로는 바보의 바닥에 엎어진 몸을 짓이키면서 동시에 오른팔로는 노젓기에 힘을 보태는 형상이다. 세레노가 표상하는 구세계와 바보가 표상하는 아프리카 흑인을 동시에 제압함으로써 델라노는 이 순간 체력이 막강하고 실무적으로 유능한 존재라는 인상이 생생한 부조(浮彫)처럼 새겨진다.⁵⁾ 이런 델라노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선상 반란을 제압함으로써 소설 서두에 불길하게 암시되는 “향후 도래할 더 깊은 그림자들의 전조가 되는 현재의 그림자들”(46)을 제압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작품의 다층적 서사와 자유간접화법, 위장 연극 등의 치밀한 형식적 구조 속에 배여 있는 깊은 아이러니를 감안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수행된 델라노의 이런 유능한 통제력은 사실상 델라노 자신이 미래 세계의 더 깊은 그림자들의 핵심일 것 같은 불길함을 던져준다.

『베니토 세레노』는 분명 1850년대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종관계의 갈등이 점차 증폭되어 남북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멜빌 당대의 팽팽한 긴장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베니토 세레노』의 저력의 상당 부분은 노예화의 시대가 미래 세대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미리 보여주고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기이한 예리함에서 나온다”(Balfour, 275)는 것도 타당한 지적이다. 그 유산이란 근대 초기부터 시작된 여러 모습의 체제적 인종주의로서, 지금은 델라노의 경우처럼 우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Notes

- 1) 여기서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론은 요긴한 사유들을 제공한다. 가령 그의 *The Decline of American Power*의 제3장 'Racism: Our Albatross'에서 월러스틴은 신세계의 노예제/인종주의가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출발과 동시에 시작되어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 '체제'를 떠받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1960년 미국 흑인해방운동을 아프리카 흑인들과의 연대 속에 밀고 나갔던 말콤X 역시 '인종주의 없이는 자본주의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함으로써 반체제적 인종주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 2) Karcher는 남북전쟁 이전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를 '노예제옹호 이데올로기', '민족학'(과학적 인종주의), '낭만적 인종주의'--'툼 아저씨'처럼 '다정하고 유순하고 어린애 같은 흑인'의 상투형에 근거한 문학작품을 포함하는--로 나누고 자상한 설명을 덧붙인다.
- 3) 여기서 '정동'(affect, 情動)은 정서(emotion)나 감정(feeling)과 관련된 몸(존재)의 상태를 가리키되 의식화를 통한 인식과 달리 유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의 힘이다. 정동은 들뢰즈의 '되기'(becoming) 철학을 거치면서, 신체와 정신,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의식과 무의식 등 기존의 이분법적 경계들을 가로지름으로써 존재와 세계를 지속적으로 변형시키는 힘으로 이해된다. 이 소설의 경우 자유간접화법으로 서술되는 델라노의 이야기에서 기존의 재현적 경계가 허물어진 '비식별 영역'을 가로지르는 존재적 역량, 즉 정동의 움직임이 분명히 감지되며, 이런 정동의 자유분방한 움직임은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라 불리는 모더니즘 작가들의 기법적 혁신을 선취한 면이 있다. '정동'에 관한 논의는 스피노자에서 비롯되어 들뢰즈를 거치면서 심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마쭈미(Brian Massumi)의 저서와 김재인의 논문 참조.
- 4)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헤겔의 '주인과 노예 변증법'의 영향이 느껴지는데, 델빌은 헤겔의 이론을 추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겔의 사유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주장(Stuckey, 9-10)도 참조. 아울러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을 활용하여 교실수업에서 읽은 사례 연구로는 엄동희 참조.
- 5) 이 형상의 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Delbanco는 파리 중세박물관에 보존된 15세기에 제작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조(240)를, Stuckey는 리버풀 기념비의 적을 밟고 있는 넬슨 제독의 상(39)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 용 문 헌

- 김재인. 「틀뢰즈의 ‘아펙트’ 개념의 쟁점들: 스피노자를 넘어」. 『안과밖』, 43호, 2017, pp. 132-155.
- 서주희. 「허먼 멜빌의 『베니토 세레노』의 유럽중심주의 담론과 서사적 해체」. 『19세기 영어권문학』, 25권 1호, 2021, pp. 33-64.
- 엄동희.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으로 읽는 『베니토 세레노』의 수업 사례」. 『영미문학교육』, 제20집. 3호, 2016, pp. 47-65.
- 한기욱. 「멜빌의 “Benito Cereno” 연구」. 『仁濟論叢』, 8권 2호, 1992, pp. 451-468.
- Balfour, Lawrie. “What Babo Saw: Benito Cereno and “the World We Live In”.” *A Political Companion to Herman Melville*, edited by Jason Frank, The UP of Kentucky, 2013, pp. 259-80.
- Brown, Sterling. *The Negro in American Fiction*. 1937. Kennikat Press, 1968.
- Delbanco, Andrew, *Melville: His World and Work*. Vintage Books, 2006.
- Grandin, Greg. *The Empire of Necessity: Slavery, Freedom, and Deception in the New World*. Metropolitan Books, 2014.
- _____. “The Two Faces of Empire: Melville Knew Them, We Still Live With Them.” *TomDispatch*, 2 Jan 2014, <https://tomdispatch.com/greg-grandin-the-terror-of-our-age/>
- Han, Kwangtaek. ““Benito Cereno” and Antebellum Epistemological Ideology.” 『근대영미소설』, 21집 1호. 2014, pp. 103-27.
- James, C. L. R. *Mariners, Renegades and Castaways: The Story of Herman Melville and the World We Live In*. 1953. Dartmouth College P, 2001.
- Karcher, Carolyn L. *Shadow over the Promised Land: Slavery, Race, and Violence in Melville's America*. Louisiana State UP, 1980.
- Kavanagh, James H. “That Hive of Subtlety: “Benito Cereno” and the Liberal Hero.”

- Ideology and Classic American Literature*, edited by Sacvan Bercovitch and Myra Jehlen, Cambridge UP, 1986, pp. 352-83.
- Levine, Robert S. and Samuel Otter, editors. *Frederick Douglass & Herman Melville: Essays in Relation*. U of North Carolina P, 2008.
- Massumi, Brian. *Politics of Affect*. Polity Press, 2015.
- Matthiessen, F. O. *American Renaissance: Art and Express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Whitman*. 1940. Oxford UP, 1979.
- Melville, Herman. *The Piazza Tales and Other Prose Pieces: 1839-1860*. Edited by Harrison Hayford, Alma A. MacDougall, G. Thomas Tanselle et al., Northwestern UP and Newberry Library, 1987.
- Sale, Maggie Montesinos. *The Slumbering Volcano: Production of Rebellious Masculinity*. Duke UP, 1997.
- Sanborn, Geoffrey. *The Value of Herman Melville*. Cambridge UP, 2018.
- Stuckey, Sterling. *African Culture and Melville's Art: The Creative Process in Benito Cereno and Moby-Dick*. Oxford UP, 2009.
- Sundquist, Eric J. "Benito Cereno and New World Slavery." *Reconstructing American Literary History*, edited Sacvan Bercovitch, Harvard UP, 1986, pp. 93-122.
- Wallerstein, Immanuel. *The Decline of American Power: The US in a Chaotic World*. New Press, 2003.
- Winters, Yvor. *Maule's Curse: Seven Studies in the History of American Obscurantism*. New Directions, 1938.

Abstract

Multi-layered Narratives and Systemic Racism in *Benito Cereno*

Ki Wook Han
Inje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Herman Melville's *Benito Cereno* is composed of interconnected multi-layered narratives, and considers the artistic and discursive effects they lead to when juxtaposed or combined with one another. In the process the paper pays close attention to Melville's extraordinary ways of shaping character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ir own, and of utilizing delicately modulated narrative forms and heterogenous texts. Though all of these elements contribute to the layered nature of the work, Captain Delano's characteristic self-deception, along with his free indirect speech, has been highlighted. Special emphasis is also put on Captain Cereno's lived experience of inversion from master to slave in terms of ontology.

In *Benito Cereno* Melville is concerned less with exposing the specific social horrors of slavery and racism than with revealing their foundational deception,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think about how ideologies of slavery and racism operate both within both living individuals and the global system of capitalism. Most importantly, Melville's integrating art dealing with such deep-rooted systemic racism obliquely through the multi-layered narratives requires not only literary but also historical thoughts and imaginations. In conclusion, we can explore through multi-layered narratives in the novella Melville's prescience about the character of the

post-slavery age, which perpetuates systemic racism in the future in one way or another.

Key Words: Herman Melville, *Benito Cereno*, multi-layered narratives, free indirect speech, systemic racism

논문접수일: 2023.01.30

심사완료일: 2023.02.17

게재확정일: 2023.02.21

이름: 한기욱

소속: 인제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이메일: englhkwn@inje.ac.kr